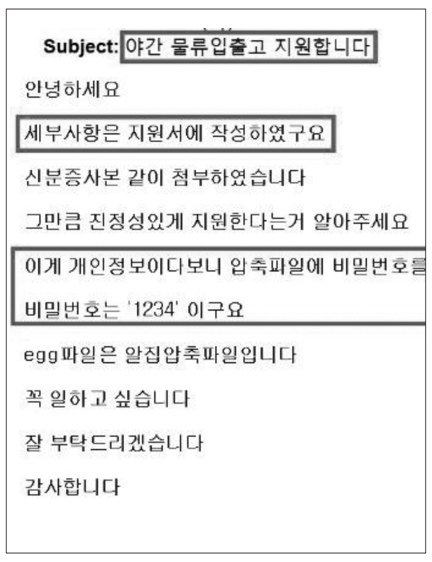
이력서 열자 컴퓨터 먹통…신종 악성코드 주의

문서파일 위장 '비너스락커'

주요기관·기업 이메일 유포

PC 잠기게 한 뒤 돈 갈취

중요 자료 따로 저장해야



Subject: 야간 물류입출고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부사항은 지원서에 작성하였구요

신분증사본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만큼 진정성있게 지원한다는거 알아주세요

이게 개인정보이다보니 압축파일에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는 '1234' 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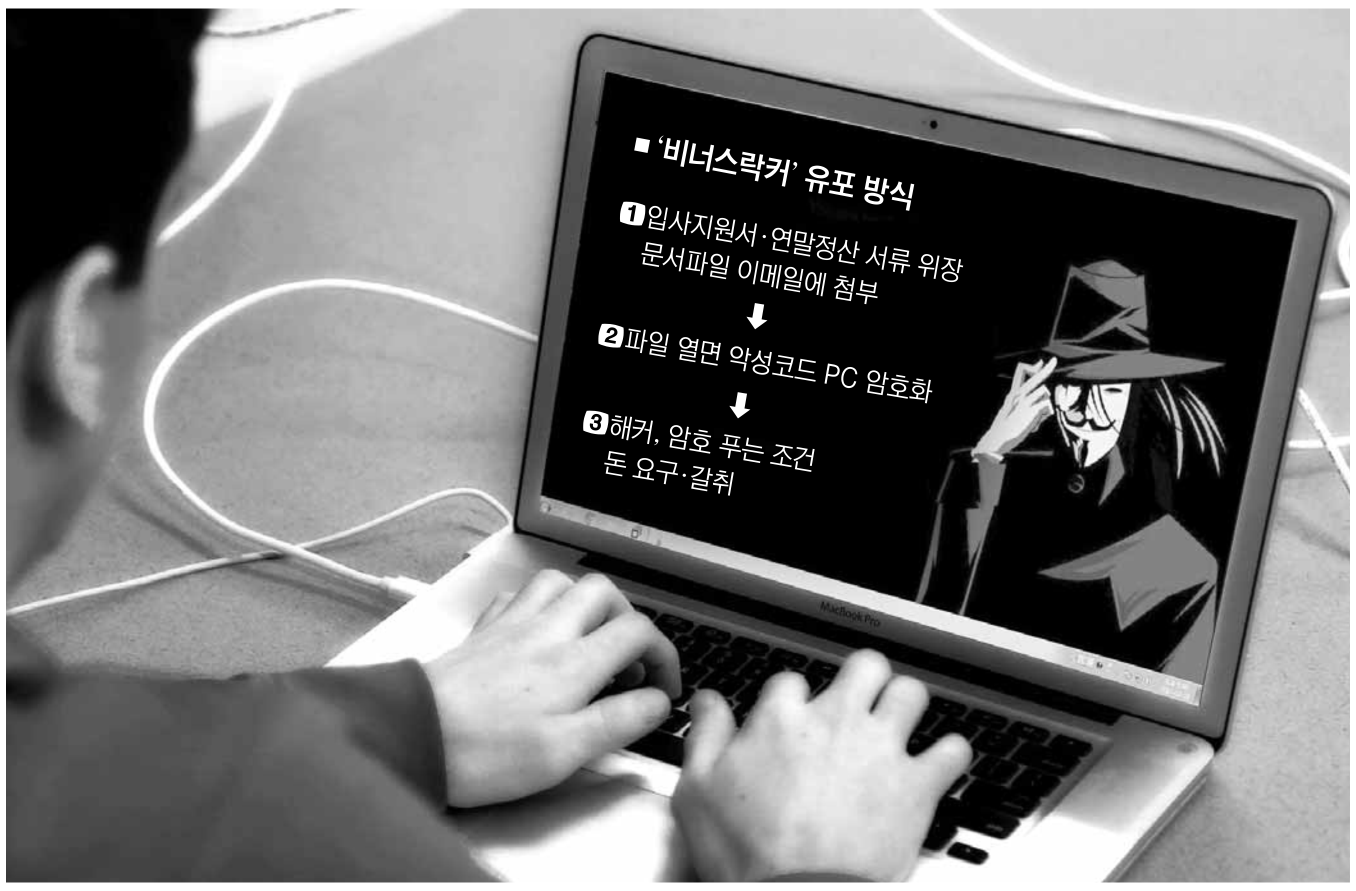
egg파일은 알집압축파일입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지원을 위장한 악성코드 이메일.



신종 랜섬웨어 '비너스락커'에 감염됐을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악성코드가 날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암호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안전문기업 ㈜하우리(대표 김희천)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설문지 문서파일로 위장한 국내 맞춤형 랜섬웨어 '비너스락커'(Venuslocker) 최신 버전이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

'비너스락커'라는 이름은 피해자 PC 파일을 '.venusp', '.venusf' 확장자로 암호화는 방식을 따 붙여졌다. 입사지원서 등으로 위장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 경우 악성코드로 인해 사용자 PC 암호화돼 잠긴다.

해커는 암호를 풀려면 온라인상 가상화폐 1비트코인(120만원 상당)을 72시간 내 입금하라고 요구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유포되기 시작한 '비너스락커'는 국내 주요기관과 기업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발전, 유포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사용해 예약 관련 문의나 입사지원, 명함제작 등 정교한 사칭으로 위험한 랜섬웨어로 평가된다.

신종 비너스락커는 지난 1월 악성코드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읽기 어렵게 바꾸고, 2월부터는 한글문서 확장자(.hwp)를 가진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나 인사발령, 구인·구직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유포된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형태다.

또 유포자가 피해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파일을 열어보게 만드는 등 지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만 1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상태다.

랜섬웨어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자료를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나 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통해 백업해 놓는 게 좋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말고, 신뢰할 수 없는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운영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며 필요시 랜섬웨어 전용백신을 사용하는 게 좋다.

첨부파일은 확장자를 문서파일(.doc)이나 그림파일(.jpg) 등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바로가기 확장자(.lnk)다. 이를 실행하면 함께 첨부한 다른 파일로 바로가기가 이뤄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이중확장자(.doc.lnk 또는 .jpg.lnk)가 붙은 문서나 이미지 파일이 첨부된 경우 함부로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확장자가 제대로 돼 있더라도 문서를 열었을 때 매크로 실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큰 탓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랜섬웨어 '비너스락커'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은 경찰청이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이버캅'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벌써 질려? …'포켓몬 고' 사용자 감소세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의 국내 인기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전국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포켓몬고 일간 사용자는 출시 5일째인 지난달 28일 52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2일 361만명까지 줄었다.

포켓몬고의 본고장 미국과 비교하면 정점을 찍은 시점과 감소 속도 모두 빨랐다.

미국 설문조사업체 서베이멍키에 따르면 애플 iOS용과 안드로이드용을 합한 미국 내 포켓몬고의 하루 사용자 수는 출시 9일째인 지난해 7월 14일 2500만명을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출시 15일째 2200만명까지 줄었다. 6일 새 12% 가량 감소한 셈이다.

한국은 설연휴 효과가 더해지며 미국보다 나흘 빠른 출시 5일째 이용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6일 뒤인 이달 3일(출시 11일째) 414만명으로 정점 대비 21% 감소, 출시 15일째인 7일에는 387만명까지 줄었다. 정점 대비 감소율은 26%에 달했다.

주간 사용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이달 6～12일 사용자 수는 643만명으로 전주(1월 30일～2월 5일)보다 52만명(7%) 줄었다. 한국 내 누적 설치자는 이달 7일부터 일주일 째 840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모바일 게임 특성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내 이용자들이 인기게임에 열광했다가 쉽게 싫증을 내는 겨우가 많고 야외에서 즐기도록 설계된 게임이 겨울에 출시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켓몬고가 해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일반 사용자들이 즐기는 캐주얼 게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포켓몬고는 미국과 일본 등 기존 시장에서 출시 반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 매출 1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만의 30분 인생극장' 만들어 보세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작지원 23일까지 모집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가 개관 10주년 기획프로젝트 '인생프레임' 세미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지원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인생프레임'은 광주센터를 이용해온 일반 시청자들이 자신이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 주제를 제시하면 광주센터가 다큐멘터리 제작 완성을 위해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세미다큐는 총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의미하며 '인생프레임'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기억할 만한 영상물 제작에 도전한다.

참여자 1인당 1작품 제작이 원칙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회 이상 제작경험이 있어야 하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제작하고 싶은 다큐멘터리 주제를 설명할 1분 영상물 포트폴리오와 지원서·제작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과 촬영, 편집 등 제작 전반에 걸쳐 다른 참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한 회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영상물을 완성해가는 협동 프로젝트로, 제작에 필요한 촬영 장비와 편집시설을 지원해준다.

제작된 다큐멘터리 작품은 오는 6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10주년 행사 때 공개상영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50-0326.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일본 교토대 학생들 '우주탄생 가설 뒤집는 졸업논문' 주목

일본 교토(京都)대학 이(理)학부 졸업반 학생 20여명이 졸업연구과제로 추진한 물리실험 결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우주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대폭발'(빅뱅) 이론의 남은 수수께끼로 꼽혀온 '우주 리튬 문제'에 파문을 일으키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1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학계에서 유력시돼온 가설을 뒤집은 이들의 연구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미국 물리학회지 이달 3일자에 실렸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대폭발 직후 수소, 헬륨 등의 원소와 함께 똑같이 가벼운 리튬도 생겨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별 관측 등을 통해 파악한 리튬의 양은 이론상 계산된 양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돼 우주탄생 수수께끼의 하나로 남아 있다.

학계는 원소주기율표 3번인 리튬의 옆에 있는 4번 베릴륨의 성질에 주목해 왔다. 베릴륨7에 전자가 하나 합쳐지면 리튬으로 바뀐다. 이론상 추정보다 리튬 이외의 원소로 바뀔 확률이 높아 실제 리튬의 양이 이론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확인을 위한 실험이 어려워 증명되지 못했다.

가와바타 다카히로 교수를 비롯한 실험팀은 이 점에 착안, 취급이 어렵고 불안정한 헬륨으로도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실험 방법을 고안해 냈다.

학생들이 본격적인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2014년 당시 4학년 학생들을 이 실험에 도전하게 했다. 실험기구를 개량하는 등 4학년 학생들이 3대에 걸쳐 도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성과를 얻었다.

실험결과 베릴륨이 헬륨으로 바뀔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기존 가설로는 리튬 부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계는 유력한 가설을 부정하는 실험결과를 얻은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이용자 75% "통신비 부담돼"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75%는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30일～2월 3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했지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38.0%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휴대전화 통신비는 5만～10만원이 38.6%로 가장 많았고, 3만～5만원이 37.0%로 뒤를 이었다. 10만원 이상을 낸다는 응답자도 4.9%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 50.7%가 월 1만～3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습니다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매매 – 14억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